20일부터 도내 공동방제단 86개 반 운영 점검소규모 축산농가 등에 대한 방역 실효성 강화  
  
  
  
경남에 활동중인 공동방제단. 경남도 제공경남도는 오는 20일부터 소규모 축산농가와 방역을 담당하는 공동방제단 운영실태를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공동방제단은 도내 18개 시군에 86개 반이 편성돼 있다. 방제단은 소독전담요원 1명과 소독차 1대로 편성돼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6866호, 전통시장 18곳, 밀집사육지역 9곳에 대해 연간 24회 순회 방문해 소독한다.경남도는 공동방제단이 소규모 농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을 실효성 있게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소독 시 방역절차 준수여부 △소독약품 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방제단의 가축전염병 방역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경남도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점검이 소규모 축산농가 등 방역 취약요인에 대한 방역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방역점검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